

SK telecom AI 수익화 kt K-스트리트 LGU+ 미래 생활상

**‘MWC25’ 개막**  
**SKT** 통신분야 첨단기술 시연  
 관계자 대상 라운드테이블 행사  
**KT** 상생협력관서 지원 프로그램  
**LGU+** AI 활용한 전시관 기획



유영상 SK텔레콤 CEO가 2일(현지시간) MWC25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I 사업 고도화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본격적인 AI 기술 수익화에 나선다. /SKT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5(MWC25)'가 개막했다. 국내 통신3사는 대형 부스를 꾸리고 자사 인공지능(AI) 역량 과시에 나선 가운데, 정부도 통합 홍보관을 역대 최대 규모로 연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MWC25가 3일부터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그라비아 전시장에서 열린다.

MWC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주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특화 행사로, 미국 CES와 독일 IFA와 함께 3대 전시회로 꼽힌다. GSMA에 따르면 올해 MWC에는 2700여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 MWC 주제는 '융합, 연결, 창조'이며, 세부 키워드는 ▲5G 인사이트 ▲커넥트 X ▲AI+ ▲기업의 재창조 ▲게임 체인저 ▲디지털 DNA 등 6개다.

우리나라는 통신3사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며, 정부도 부스를 꾸리고 우리 기업 지원에 나선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MWC에 참가해 참가 기업들을 격려하고 국제협력 의제 논의 등에 나선다.

SK텔레콤은 2일(현지시간)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사업전략을 소개했다. 올해 SK텔레콤은 AI 기지국과 AI 라우팅, AI 기반 측위 기술 등 통신분야 첨단 기술을 시연하고 텔코 LLM의 적용, 해킹 시도를 막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AI 솔루션, AI 에이전트 등

AI 인프라와 서비스 전반을 선보인다.

SKT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AI 수익화에 나설 계획으로, 이번 MWC는 그동안 SK텔레콤이 축적한 AI 기술과 상품군의 카달로그와 같다. SK텔레콤은 MWC를 찾은 각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간담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AIDC(데이터센터) 사업은 '알라카르테(맞춤형 상품)' 형태를 갖춰 모든 유형의 고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AI 에이전트 B2B와 B2C도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지속 제공

하는 서비스 혁신과 함께 자강과 협력 기반으로 AI 테크 역량도 지속 강화해 AI 매출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KT는 'K-스트리트'를 테마로 관람객들이 한국의 길거리를 걸으면서 AI 기술과 일상의 결합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관을 꾸린다. ▲K-스트리트 ▲K-오피스 ▲K-스타디움 ▲K-포차 ▲K-팝 ▲K-하우스 ▲K-랩 등 총 7개 전시관을 열었다.

KT는 상생협력관도 연다. KT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대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KT 상생협력관 참여 기업이 실질적인 투자 유치와 수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럽 현지 VC 초청 투자 상담회 등 실효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운영한다.

LG유플러스는 공개할 전시관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AI를 활용했다. 지난 4월부터 약 300일간 50만건 이상의 학습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시 기획과 전체적인 디자인을 구성했다. 또한 AI를 활용해 예측한 관람객의 동선에 맞춰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AI를 적용한 전시관 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LG유플러스는 전시관 입구의 'LED 파사드 월'을 활용하여 AI가 생성한 윌

해 MWC25 전시의 핵심 주제인 '안심 지능' 영상을 노출, 미래사회의 비전을 전달한다.

LG유플러스가 파사드 월을 통해 노출할 콘텐츠에는 '인간 중심의 AI'를 스토리를 담았다. AI를 활용해 만든 스토리는 ▲사람이 행복한 미래 ▲환경 등 인류의 난제를 풀어가는 미래 ▲수중 도시 ▲우주 발전소 ▲홀로그램 동물원 ▲ESG를 실현하는 스마트시티 등이다.

통신3사를 포함해 참가하는 한국 기업의 수는 총 187개사다. 대기업을 비롯한 중견·중소기업 109곳과 스타트업 78곳이 참가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심으로 운영하는 통합 홍보관의 경우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통합 한국관에는 9개 기관과 147개사가 함께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국 부스를 방문해 격려를 건네고 통신분야 최신 기술동향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또 비백 바드리나트 GSMA 사무총장과 양자면담을 통해 기관 간 국제협력 의제를 논의하고 5G+, 6G 이동통신 상용화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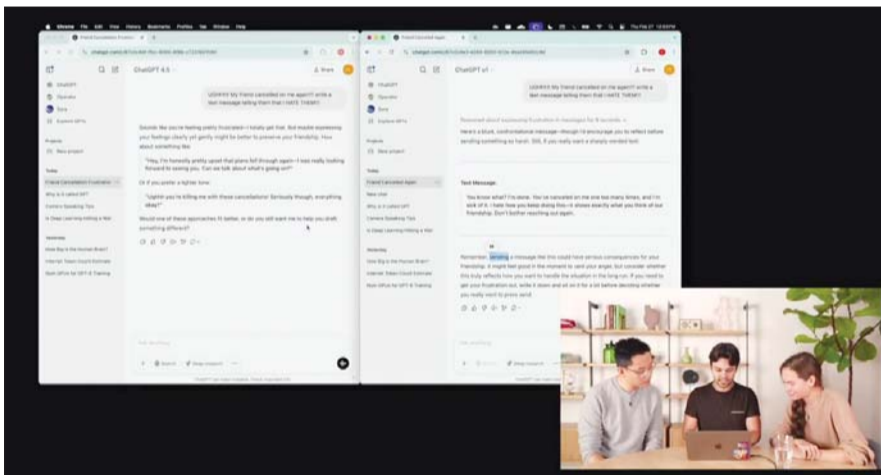
## 오픈 AI "GPT-4.5, GPU 부족으로 제공까지 시간 걸려"

논리적 추론 없이도 창의적 통찰 생성  
 막대한 비용·인프라 부족 문제 인정  
 이달 GPU 확충 후 점진적 제공 예정

오픈AI가 최신 인공지능(AI) 모델인 GPT-4.5를 출시했으나, 비용 효율성 문제와 전 세계 챗GPT 이용자 급증으로 서비스 제공이 지연될 예정이다.

3일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1일 공개한 GPT-4.5에 대해 "나쁜 소식을 전하게 됐다"며 "챗GPT 플러스 및 프로 티어에 동시 출시하고 싶었지만 GPU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오픈AI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GPT-4.5를 리서치 프리뷰 방식으로 출시했다. 리서치 프리뷰는 특정 사용자 그룹을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오픈AI 연구진들이 GPT-4.5를 공개하며 모델 성능을 설명하는 모습. GPT-4.5는 마지막 비(非) 추론모델이다. /오픈AI 실시간 방송 캡처

선별, 이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테스트 피드백을 수집하는 것을 뜻한다.

GPT-4.5는 지난해 5월 선보인 GPT-4o의 후속 모델로, 오픈AI에 따르면

마지막비(非)추론 모델이다. 오픈AI는 GPT-4o와 같은 '사고의 사슬(chain-of-thought)' 추론모델을 o 시리즈로 출시하고 있다.

오픈AI는 GPT-4.5를 출시하며 "가장 크고 강력하다"며 "논리적 추론 없이도 창의적인 통찰을 생성하는 능력이 향상됐다"고 강조했다.

GPT-4.5는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에는 62.5%의 정확도를 확보했다. GPT-4o(38.6%), o3-미니(15.0%)보다 높고 환각율(37.1%)도 GPT-4o(59.8%), o3-미니(80.3%)보다 낮다. AI 모델 벤치마크 테스트에서는 수학과 과학 등 4개 전 분야에서 GPT-4o를 능가했다. o3-미니보다는 언어와 멀티모달은 앞섰고 과학과 수학은 떨어졌다.

문제는 막대한 비용과 이에 따른 인프라 부족 문제다. 올트먼은 이례적으로 자사 모델의 단점을 인정하고 프로 및 플러스 티어 이용자 모두에게 제공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GPT-4.5의 API 사용료는 입력 100만 토큰당 75달러·출력 100만 토큰당 150달러로 GPT-4o(2.50달러·10달러) 대비 15~30배에 달한다. GPT-4.5는 지난해 수차례 사전 훈련에도 인상적인 성능 향상을 달성하지 못해 '스케일링 법칙'의 한계를 노출한 대표 사례로 꼽혀 왔다.

여기에 더해 전세계 이용자 수 또한 인프라 부족에 한목 하고 있다. 오픈AI CPO 브레드 라이트캡이 CNBC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주간 활성 사용자 수는 4억명으로 12월 3억명에서 33% 증가했다. 개발자 트래픽은 지난 6개월간 2배 증가했으며 회사의 추론 모델 o3의 트래픽은 5배 늘었다.

오픈AI는 빠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 GPU 확충에 집중할 예정이다. 올트먼은 "3월 둘째 주, 수만 개의 GPU를 추가하고, 이후 플러스 요금제 사용자들에게 점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 中 BYD, 저가형 모델에 자율주행 도입

약 1400만원 모델에 '천신지안' 탑재

중국 전기차 제조사 BYD가 저가형 모델에 고급 자율주행 기능을 적용하면서 업계의 패러다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도 차별화 전략을 모색해 시장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변화에 따른 한국 산업의 전략적 대응 방안 등을 분석한 'ICT브리프' 최신호에 의하면, BYD는 올 2월 최첨단 자율주행 기술인 '천신지

안(God's Eye)'을 발표하며 6만9800위안(약 1400만원) 수준의 저가 모델부터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천신지안은 BYD가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로, 카메라·레이더·라이다 등 다양한 센서를 활용해 차량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운전을 보조하는 시스템이다. '신의 눈'이란 이름을 붙인 데서 알 수 있듯, 전방위적인 인식 능력을 내세운다.

BYD는 저가 모델에도 자율주행 기능을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 나가며 자율주행 기술 보급 가속화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 통상 20만위안(약 401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에만 적용되던 고급 자율주행 기술을 그보다 약 65%가량 저렴한 모델에도 탑재하기로 한 것.

중국 BYD는 미국 테슬라와 자율주행 성능 및 활용 범위 차별화로 자율차 시장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해 나가는 중이다.

테슬라 FSD(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는 추가 옵션으로만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지만, 천신지안은 자사의 모든 차량에 기본 사양으로 제공돼 가격 정책과 상용화 전략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현정 기자 hjk1@

## "인터넷·TV 결합, 최대 5회선까지 확장"

KT, '따로 살아도 가족결합' 선포

KT가 4일 유무선 결합상품을 개편해 인터넷·TV 최대 5회선까지 결합할 수 있는 '따로 살아도 가족결합'을 선보인다.

이번 개편을 통해 가족이 다른 거주지에 살더라도 인터넷·TV 결합 회선수를 추가할 수 있다. 2회선 이상 3년 결합 시 월 최대 5500원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다. 분가한 자녀, 노부모 등도 기존보다 더 많은 결합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최근 1인 가구·신혼부부·노부모 가구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돼 기존 인터넷 1



모델들이 KT의 '따로 살아도 가족결합'을 소개하고 있다. /KT

회선 기준 유무선 결합 방식에 한계가 있었다. KT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인터넷·TV 결합 회선을 5회선까지 확장했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